

‘지능형 제조’로 낚시용품업 새 트렌드 선도

길림의화어구주식유한회사 국제시장 변화에 대응해 판매 모델 조정, 수익 안정화



매하구시에 위치한 길림의화어구주식유한회사는 세계적인 낚시용품 가공 및 수출 기지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힘있는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에 비해 각 생산라인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향후 운영 상황으로 활력을 띠고 있다. 하나의 낚시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료 절단, 판 말기, 테프 감기, 고착, 도색, 조립 등 30여가지의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사는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중 고급 낚시용품 및 신소재 스포츠 레저 용품을 연구, 생산, 판매하는 하이테크 기업이다. 창립 이후 회사는 끊임 없는 도전을 통해 초기 장비 도입에

서 자체 연구개발로 전환하였으며 초고탄소포, 특수탄소포, 탄소나노튜브를 결합한 공정을 도입해 해외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탄소섬유 낚시대를 개발했다. 현재 이 회사는 바다낚시대와 미끼낚시대 생산 전문 기업으로 성장, 바다낚시대 900여종, 미끼낚시대 1,000여종으로 구성된 방대한 제품 라

인업을 구축했다. 혁신 능력을 인정받은 이 회사는 시급 기업기술센터, 길림성과과학기술 ‘소거인기업’ (小巨人企业), 하이테크 기업 및 성급 ‘전정특신’ (专精特新)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30여개의 지식재산권과 100여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한국 N-S사와 협력 관계를 맺은 이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했으며 국내외 브랜드 NS BLACKHOLE를 공동으로 개발해 현재 국내 미끼낚시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길림의화어구주식유한회사 안영옥 리사장은 “국제시장 변화에 대응해 판매 모델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수익을 안정화하고 있다.”며 “동시에 신제품 개발 속도를 가속화해 판매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고급 낚시대 기술 개발 인재들로 구성된 회사 연구개발팀은 매년 수십종의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 제품은 한국, 일본, 로씨야, 타이, 오스트랄리아, 아메리카 주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 글 김영화기자 / 사진 왕요희

인삼 밀크티

‘새로운 맛’으로 젊은이들 입맛 겨냥

인삼제품으로 어떻게 청년 소비 시장을 공략할까? 또 인삼은 어떻게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최근, 길림성장백산인삼산업그룹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인삼 밀크티가 시장에 등장하여 각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인삼의 ‘새로운 맛’으로 젊은 세대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있다.

해당 기업의 전자상거래부 부총경리 지나는 “인삼 밀크티는 올해 새로 출시된 제품으로 탄소(炭燒) 커피와 오리지널 두가지 맛이 있으며 기존 밀크티에 동결 건조된 인삼조각을 추가해 제품의 영양가를 높였다. 이 제품은 올해 설날 전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인삼 밀크티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은 기업이 소비시장을 깊이있게 료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길림성 토배기 민영기업인 장백산인삼산업그룹주식회사는 2017년에 설립되었는데 길림성 ‘장백산인삼’ 지역 공공 브랜드의 전국 독점 운영사이다. 최근 몇년간 이 기업은 ‘인터넷+’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특색 농업 브랜드 발전 경로를 고수하며 인터넷 전 령역 운영과 ‘재배, 연구생산, 유통판매’를 일체화한 3차 산업의 심층 융합 및 문화, 령행 크로스오버(跨界) 융합의 전체 산업 가치 사슬의 발전 모식을 형성했다.

인삼 밀크티외에도 기업은 입에

넣으면 바로 녹는 인삼 블루베리 동결 건조 플레이 타블리(閃釋片), 개봉 즉시 마실 수 있는 홍삼 니코틴아미이드(烟酰胺) 블루베리 주스 음료, 인삼 초콜릿 등을 연구 개발해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백산인삼’의 원산지 특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식별도가 높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은 ‘장백산인삼·윤정천궁’ 콜라보레이션버전(联名款) 인삼 밀크티 계열 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4월, 그룹은 이 계열 제품을 무한으로 가져가 제7회 세계대전강박람회 출품했는데 인삼 밀크티의 진한 우유향과 은은한 인삼맛의 조화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3월, 대학생 길림 유지 첫 성급시범강연보고회가 길림외국어 대학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 ‘장백산인삼’ 브랜드와 함께 ‘장백산인삼·윤정천궁’ 콜라보레이션 인삼 밀크티가 등장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독특한 풍미의 ‘인삼 밀크티’는 많은 학생들의 사진촬영과 SNS 공유를 이끌어냈다.

지나 부총경리는 “현재까지 그룹은 총 20개 계열에 300종의 제품을 연구개발했다. 기업은 제품 혁신을 통해 길림성 인삼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장백산인삼이 깊은 산속에서 도시로, 약방기에서 밀크티 컵으로 흘러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길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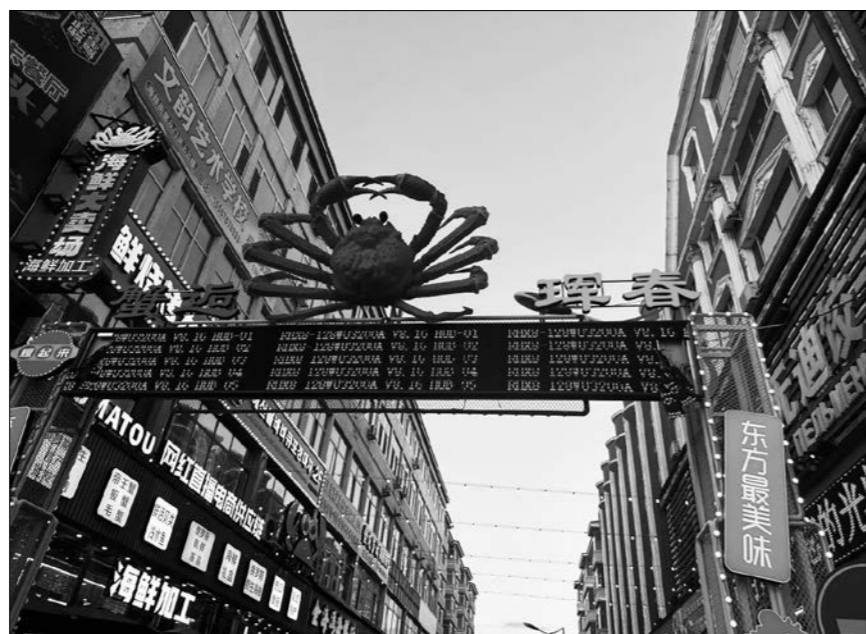
킹크랩 만톤 이상 수입... 훈춘에 ‘바다향’ 가득

로씨야의 생생한 킹크랩을 실은 트럭들이 훈춘통상구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훈춘에서 집산된 후 이 킹크랩들은 도로, 철도, 항공을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되어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 근무 2대 정치지도원 관위의 소개에 따르면 훈춘통상구는 로씨야 포세트항과는 불과 42킬로미터, 자르비노항과는 7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2016년 령장 수산물 및 식품 수생동물(水生动物) 수입 지정 항으로 공식 승인되면서 훈춘통상구는 로씨야 킹크랩이 중국으로 류입되는 주요 관문으로 되었다. 현재 훈춘통상구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대의 트럭, 100여톤에 달하는 해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일일 수입 화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통상구는 신속 검역 시스템, 생산제품 우선 통관 예약제, 영업시간 연장 등 다양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함으로써 해산물 수송 차량의 통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는데 이를 통해 해산물 무역 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북아생선해산물산업단지에 들어서자 진한 ‘바다향’이 풍겨오는 가운데 킹크랩과 스노우크랩으로 가득찬 트럭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작업일군들이 질서정연하게 하역, 계량, 분류, 라벨 부착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훈춘연항공무역유한회사 총경리 리룡은 훈춘에서 가장 먼저 대로씨야 생선해산물 무역에 뛰어난 수입업자중 한명이다. 그는 “훈춘은 바다와 맞닿아있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중요한 해산물 집산지로 매년 훈춘통상구를 통해 들어오는 킹크랩은 150만마리가 넘으며 이는 전국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킹크랩 소비 성수기를 맞아 로씨야 심해에서 전날 잡은 킹크랩이 다음날 바로 훈춘통상구를 거쳐 훈춘으로 운송되는데 럽시양식장에 잠시 머문 후 전국 각지로 류통되며 소비자들의 식탁에 도착할 때까지도 생생한 상태로 유지된다.

훈춘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 위치한 킹크랩 보세점은 온라인 다국보세판매와 오프라인 류통을 결합한 신개념 체험형 매장으로 매장내 수조에 수백마리의 생생한 킹크랩들이 가득하다. 수조 옆 생방송구역에서는 직원들이 생생한 킹크랩을 손에 들고 식탁에서 식탁에 오르기가까지의 과정을 전국 네티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킹크랩 보세점 총경리 왕해의 소개에 따르면 그들은 로씨야 수산 기업의 심층적인 협력을 통해 심해에서 잡은 킹크랩을 ‘원차량, 원물수, 원물품’ 그대로 매장까지 운송하는데 원형 LED 전시판에는 그 과정이 순환 재생되며 문화창작구역에서는 킹크랩 껍질

로 만든 공예품과 킹크랩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매장 오픈후 킹크랩 보세점은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의 매장 외부에 가공구역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이 선택한 킹크랩을 전문 조리사가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주기도 하였다.

공명에서 온 관광객 주천은 “훈춘의 해산물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며 특히 킹크랩은 살이 아주 연하고 신선해서 잊혀지지 않는 맛”이라면서 이곳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아 훈춘의 킹크랩을 공명으로 가져가고 더 많은 공명 사람들이 훈춘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성은 로씨야 ‘빈해 2호’ 운송 회랑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갑자기-자르비노-훈춘’ 항로 개통과 성숙한 교통 인프라,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구축으로 킹크랩을 비롯한 해산물의 생존률이 높아지고 운송비가 절감되었으며 통관이 더욱 신속해졌다. 이에 힘입어 훈춘시의 해산물 가공 및 전자상거래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2024년 훈춘시는 총 1만 2,000톤에 약 33억 1,000만원 상당의 킹크랩을 수입했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3,694톤에 약 7억 3,800만원의 킹크랩이 수입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길림일보

장백산에서 북경, 천진, 하북까지 고속철로 직행

2025년 9월말 심양-장백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장백산에서 북경, 천진, 하북까지 고속철도로 직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장백산고속철도역은 개통전 합동조정, 합동시험을 질서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분들은 관광객들의 체험감을 높이기 위해 역 서비스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객 분류 연결 로선을 최적화하고 있다. 장백산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은 이번 달 사용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길림성관광발전대회는 장백산 주요 문화관광 대상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룡각춘문 화관광총합체, 서원호텔 2기, 전설마을, 4D 조형 체험 공간, 저공 비행 관광 활주로, ‘길품회’ 등 대상은 장백산의 관광객 수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

향후 각 부문은 건설중인 대상 준공과 가동을 다그치고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정경, 임대, 상품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여 관광의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또한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생태 우세를 확대하고 ‘식사, 숙박,

려휴, 쇼핑, 오락’ 등 업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상업모식을 혁신하고 소비정경을 확장하여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 밖에도 력사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여 장백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경식, 물임식 문화려휴 체험 대상을 출시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장백산은 동북아지역의 중요한 생태적 보루로 현지는 환경보호와 안전 발전을 더욱 잘 조화시키고 질 높은 공사, 믿음직한 공사, 생태친화적 공사를 진행하여 24시간 등산로를 확충하고 관광객 휴식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 및 보조 시설을 보완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중국관광보

图说
我们的
价值观

中华圆梦 万马奔腾

友 诚 敬 爱 法 公 平 自 和 文 民 富
善 信 业 国 治 正 等 由 谐 明 主 强

河北蔚县 焦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